

광주 R&D특구 지정됐다

지경부 의결 광산업·친환경차 산업 대도약 기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17일 광주·대구 연구개발(R&D)특구 추가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05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6년 만에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이로써 광주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지식경제부는 이날 "광주와 대구를 각각 광(光)기반 융복합산업, IT기반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특구지정안과 제2차(2011~2015)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이 확정돼 오는 20일 고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 신규 지정 특구는 대학·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등 혁신주체와 특구 지원시스템 체계화·전문화를 위한 특구지원본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된다. 또 사업화 대상 기술 공급, 기술금융 제공,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지원 등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수익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특구 간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면적은 첨단 1지구(3.53km)·2지구(1.24km)·3지구(3.72km), 신흥지구(3.45km), 진곡산업단지(1.91km), 대학(2.49km), 나노산업단지(0.90km) 등 18.73km로, 이 공간

에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스마트케어·차세대 전자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과 기업체 등이 집중배치될 전망이다.

1단계인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4400억원, 시비 150억원, 민간자본 275억원 등 4825억원을 투입해 이 미 개발이 완료된 첨단 1지구 등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개발 중인 진곡산업단지, 장성 나노산업단지, 첨단 2지구 등은 연구단지로 조성한다.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어 특구 조성 정도에 따라 이후 확장도 가능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규 지정 특구는 실리엔벨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구 내 구성원 간 활발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형 혁신과 기술·산업의 융복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준태 광주시장은 특구 지정에 환영의사를 밝힌 뒤 "국제과학기술·융합기술·융합기술·산업화 등 3단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산단 정전 수백억 피해

20여개 업체 가동중단...완전복구 수일 걸릴 듯

17일 오후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GS칼텍스 등 산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8면>

한국전력공사와 GS칼텍스 등 산단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8분께 순간 정전이 발생, 산단 내 20여개 업체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피해 기업들은 GS칼텍스, LG화학, 제일모직, 삼남석유화학, 휴켄기초과학연구·응용기술연구·산업화 등 3단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피해 기업들은 즉각 공장 재가동을 위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정유·화학 공장의 특성상 완전 복구까지는 공장 및 공정별 사정에 따라 최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GS칼텍스는 20여분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수백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와 여수시 등 관계당국은 조업 차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고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한전 여수지점은 "여수화력발전소에서 용성변전소로 가는 2개 선로 중 1곳에 강풍으로 인해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이 발생하며 순간 정전이 일어났다"며 "자세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여수화력발전

소 가 순간 정전에 따른 과부하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전력을 차단,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해 정전 원인 등을 두고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순간 정전이 발생하자 여수화력발전소가 과부하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전력공급을 차단해 20여분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은 복구됐지만 1공장 전부가 현재 가동이 중단됐다"며 "이날 안으로 다시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구제역 불안 도축 행렬

17일 나주시 운곡동 축협 공판장에는 소를 도축하려는 축산농가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밀려들었다. 설 대목을 앞두고 구제역 불안 심리로 인해 축산농들이 서둘러 소를 출하, 도축을 하려면 10시간 이상 대기해야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강국면 AI 해남서 의심신고 촉각

전남 구제역 백신 접종 50% 완료

전남 전역을 휩쓸며 300만 마리의 닭·오리를 땅 속에 파묻었던 구제역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17일 의심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전남도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17일 "해남군 문래면 닭 사육 농가에서 300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이후 구제역성 AI

로 확인되거나 이렇다할 의심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40건의 의심 신고 가운데 19건은 구제역성으로 확진 판정이 났고 14건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건은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저면 사를 전만 해도 닭과 오리 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가 하루에도 5~6건씩 쏟아지고 하루에만 6개 농

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소 수그러들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살처분·매몰 작업도 서남부 지역에 내린 눈으로 예초 계획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군 병력 등의 투입으로 전체 대상 가축(329만 7000마리) 가운데 90%(265만 8000마리)의 매몰 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정부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계획에 따른 접종도 도내 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는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6일 6만 1000마리(9.2%)에 대한 접종을 마친 데

이어, 17일에는 도내 모든 소 54만 5000마리와 종돈장 돼지 11만 4000마리의 50%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 대상이 된 가축이 198만 6987마리로 늘어났으며 이중 172만 7715두(87%)가 묻혔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이 전국의 가축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함에 따라 접종 대상 가축은 16개 시·도 1346만 5000여 마리로 늘었으며, 이 중 16일까지 284만 6000여 마리(21%)가 주사를 맞았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방백신 접종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관련 비용이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청사 이전 사실상 백지화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이 17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시교육청 청사 이전(광주일보 1월13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간 매각 협상이 일단락된 후 이전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우회적인 의사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도 교육감이 광주시와 옛 청사

매각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얘기해 사업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할세낭비'라는 여론과 유관기관인 광주시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미디어 파크 조성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비친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 교육청 옛 부지를 포함한 중의공원 일대에 미디어 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2008년부터 도 교육청과 부지 매각 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는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있어야 했다"며 교육청 내부 관련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기도 했다.

시 교육청은 특별교부금 등 544억원의 재원을 마련, 옛 전남도교육청 청사 시교육청 청사로 오는 2013년 말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간접체벌 허용·출석정지제 도입 교원평가 실시·주5일 수업 전환

이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 체벌금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관련기사 7면>

아울러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교원평가제 근거법률인 초·중·고교법 개정안의 국회 미처리 상황과 관련, 법안 통과에 앞서 일단 대통령령을 개정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

일 체벌의 대안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도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달 말까

지 대통령령인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이 "20년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학교의 격주휴무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상반기 중 수업 일수 및 교육과정 개선책, 대체프로그램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주5일 수업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신묘년은 **히딩크 호텔**과 함께 하세요

패키지 이벤트
객실 + 조식(2인) + 사우나(2인) ₩70,000
웨딩 및 돌잔치 50인 이상 가능(매주/월/화)
침선 및 각종 세미나 환영(대.중.소 연회장 관례)
행사 메뉴: 양식, 한식(전공명), 뷔페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 062-227-8500 |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금강제화 전속모델 차인표, 한은정

선택의 즐거움, 가득한 기쁨 - 금강상품권

하나의 상품권으로 3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를 선물하세요!

금강 인터넷 쇼핑몰 www.kumkangmall.com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MMT1000FC31

HCB112FE3 / WWP3415KR47

WAX1931FO41

100,000

www.kumkangmall.com

www.kumkangmall.com